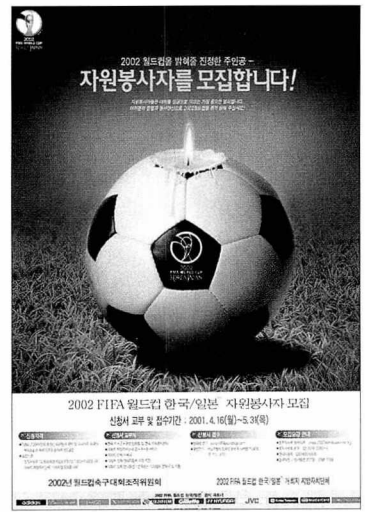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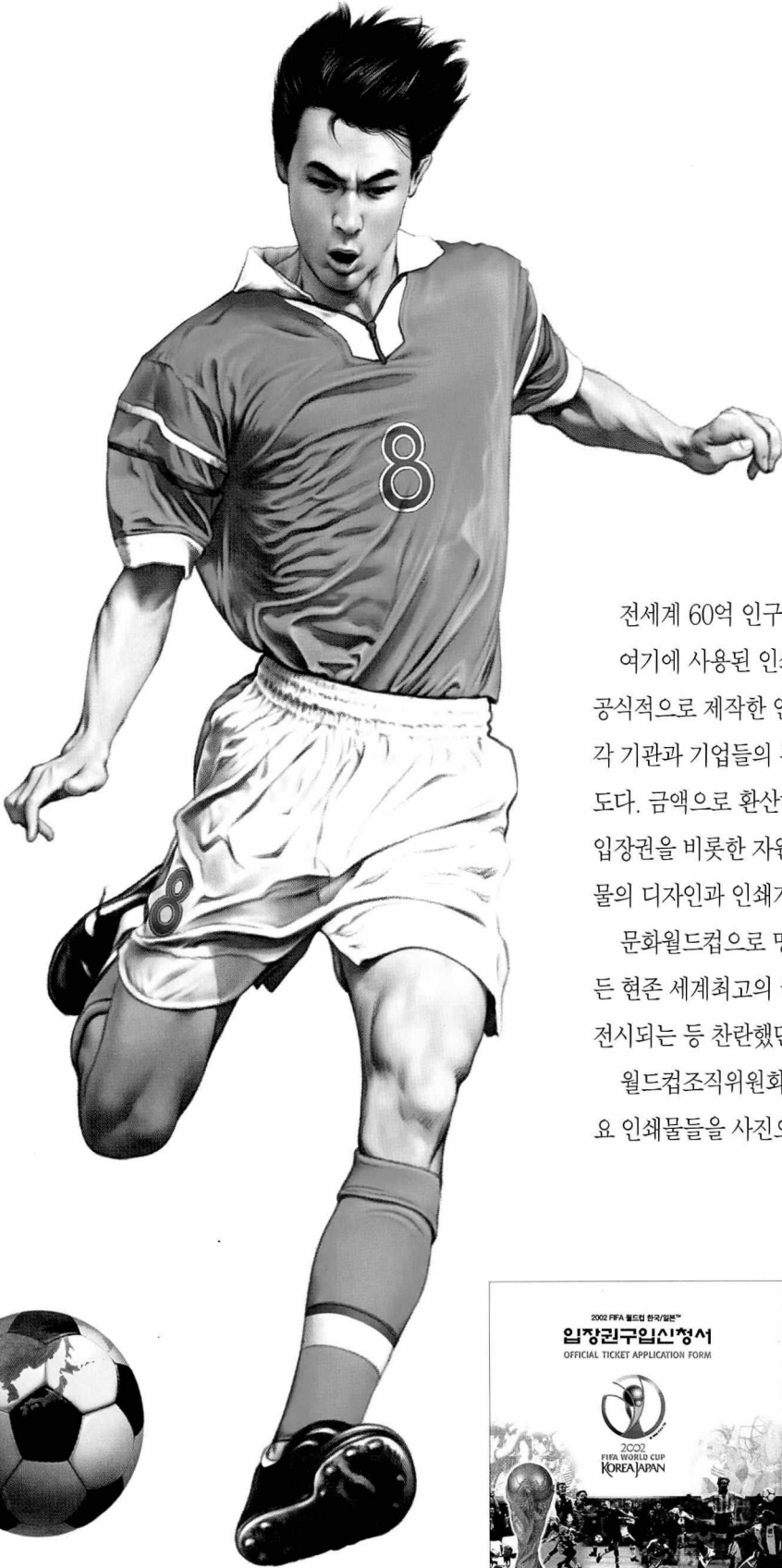


2002 한·일 월드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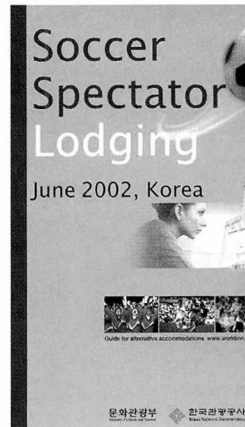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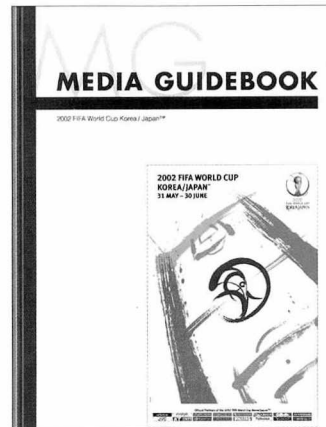
공식제작 인쇄물 30여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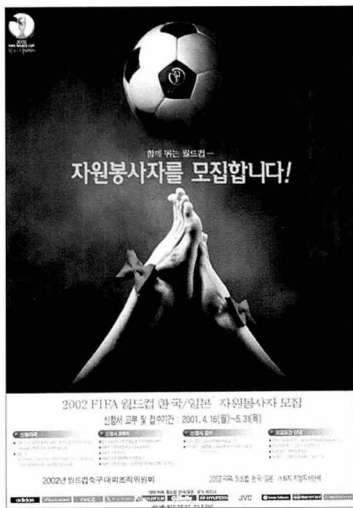


전세계 60억 인구의 축제인 한·일 월드컵축구. 여기에 사용된 인쇄물은 얼마나 될까.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작한 인쇄물은 대략 30여종에 달했다. 그러나 정부 각 기관과 기업들의 홍보물까지 합하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. 금액으로 환산하면 1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. 입장권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모집 포스터와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의 디자인과 인쇄기술도 수준급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.

문화월드컵으로 명명된 이번 월드컵에서는 우리의 선조들이 만든 현존 세계최고의 금속활자본 '직지심체요절'이 전국 각 호텔에서 전시되는 등 찬란했던 인쇄문화를 홍보하는데도 한몫했다.

월드컵조직위원회의 협조로 이번 한일월드컵에 사용되었던 주요 인쇄물들을 사진으로 감상해 보자.





▲월드컵 개최가 결정된 순간부터 온 국민과 함께 호흡했던 각종 포스터.



▲입장권.

▲전 세계에 월드컵 개최국 한국을 알리는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다양한 리플렛.



◀출판물 형태로 월드컵의 심층적인 이해를 도왔던 인쇄물들.

▶한국담배인삼공사가 한국선수들의 선전을 염원하기 위해 새로이 제작한 담배갑.

